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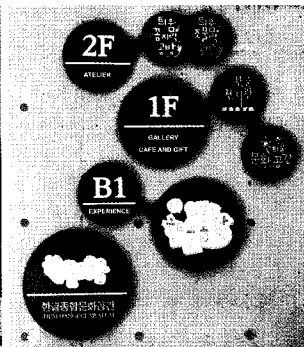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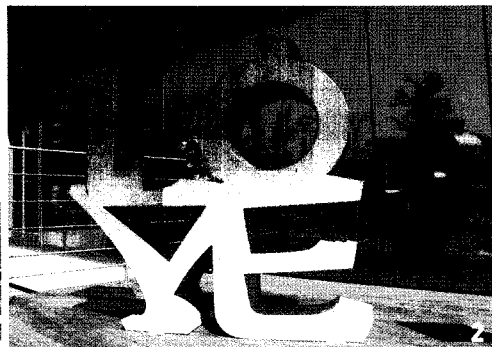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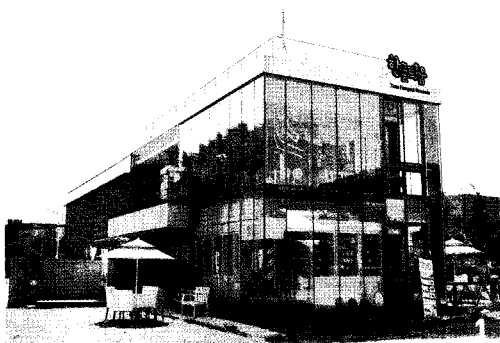
한글종합문화공간 '한글티움'



서체개발 회사 산돌서  
헤이리에 개관

오는 10월 9일은 564주년 한글날이다. 한글날은 세종대왕의 한글 반포를 기념하고 한글의 연구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한 날이다. 1926년 11월 4일(음력 9월 29일), 세종실록에 이 날 세종대왕이 한글을 반포한 날로 기록되어 있어, 조선어학회에서 이 날을 제 1회 가갸날로 정했다. 이듬해인 1927년 명칭을 '한글날'로 고치고 계속 음력으로 기념하다가, 1940년 7월 양력으로 바꿔 10월 9일을 한글날로 확정하였다.

한글날을 맞아 산돌커뮤니케이션(대표 석금호)에서 지난 2009년 6월 개관한 한글티움을 방문했다.



## 체험 전시 등 다양한 한글종합문화공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에 대지 1157평방미터, 건평 826평방미터,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성된 한글틱움은 국내외 첫 한글종합문화공간으로 어린이를 위한 체험, 전시, 공방은 물론 어른을 위한 문화 공간도 배려하고 있다.

이곳은 어린이한글체험관(우당탕 한글공장), 한글전시관, 한글체험공방으로 꾸며져 있다. 한글 체험관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 배움과 놀이가 함께하는 복합 체험관이다. 한글이 어디에서 왔고 누가 만들었는지 평소 어린이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다뤄 흥미를 준다. 애니메이션 '세종대왕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을 상영하는 시청각 교실도 있다.

전시관과 체험공방은 모든 연령대가 이용할 수 있다. 전시관에서는 한글의 탄생 과정, 한글을 통한 근현대 생활, 아름다운 한글 서체 등 한글의 역사와 과정을 모두 만나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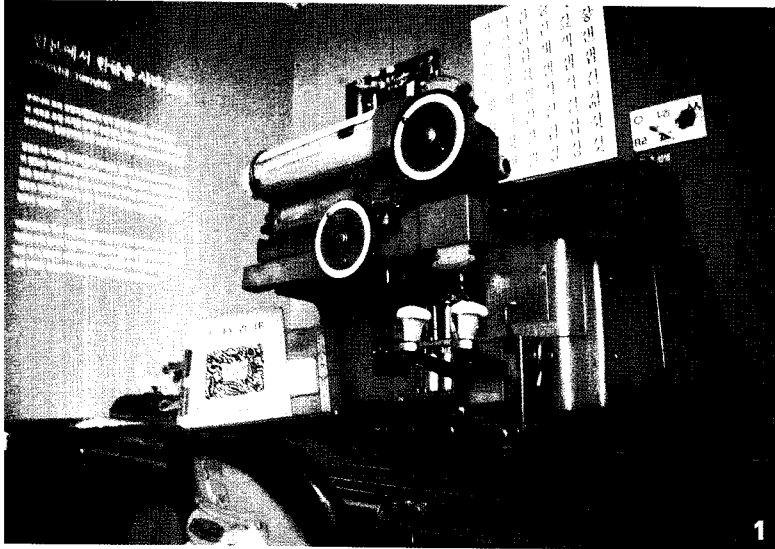
전시장내에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의 마음'이라는 글이 있는데, 새삼 한글자 한글자 마음속에 담게 된다.

“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일반 백성이 말하고자 하나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할 자가 많은지라, 내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드나니 사람마다 쉽게 배워 일상생활을 편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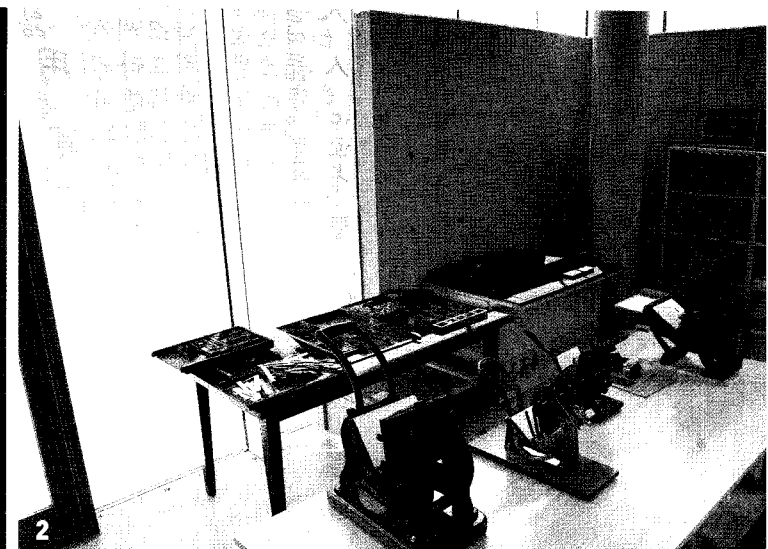
한글전시관에는 한글자체에 대한 전시뿐 아니라 한글을 사랑한 사람들도 소개하고 있다. 공병우 박사가 만든 최초의 한글 타자기와 함께 글꼴디자이너이자 교수로서 평생 한글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고 김진평 교수 기념관도 자리하고 있다.



- 1 한글틱움 외부 전경
- 2 어린이들의 놀이터인 우당탕 한글공장
- 3 1층에 위치한 한글전시관 내부 모습
- 4 최초의 한글타자기인 공병우 타자기
- 5 한글을 소재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틱움공방
- 6 훈민정음과 한글창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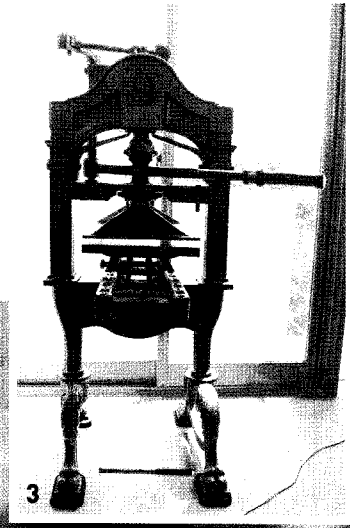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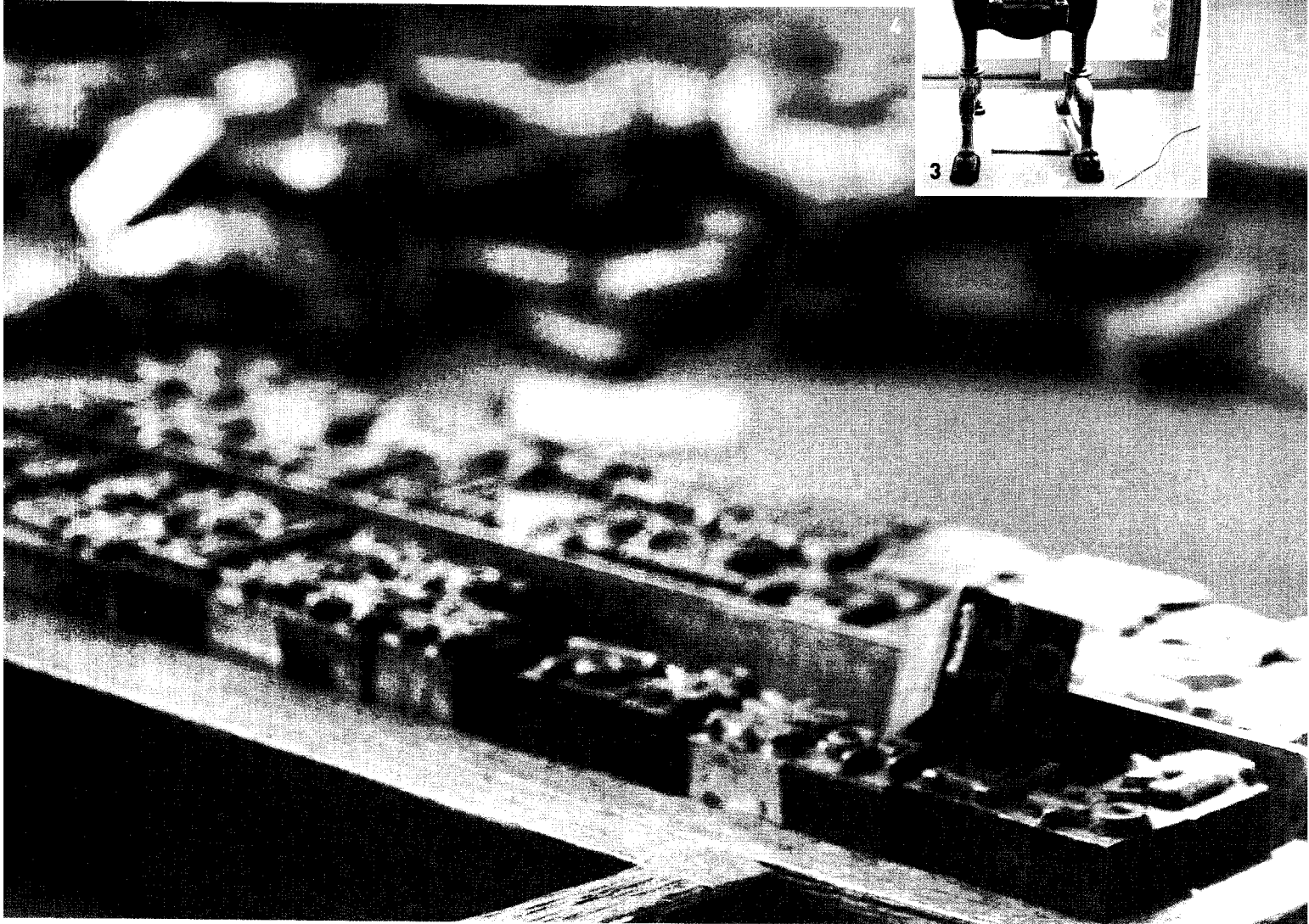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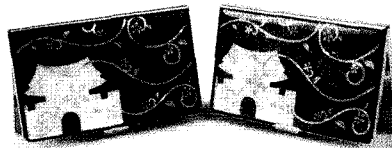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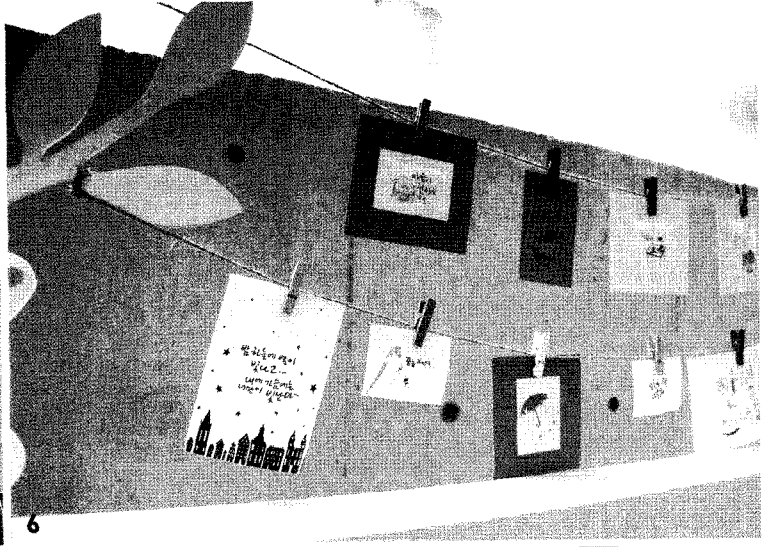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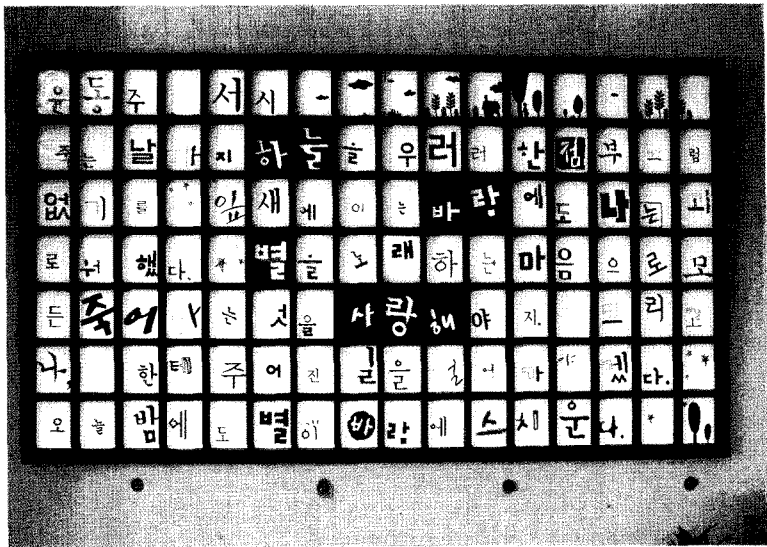
2

- 1 한글전시관내에 설치돼 있는 자모조각기
- 2 활판인쇄를 체험할 수 있는 티움공방
- 3 운동주의 서시를 다양한 글씨로 표현한 작품
- 4 한글과 관련된 전시작품들
- 5 1층 문화공간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한글관련 상품들



3





| 위치 |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 <3번출구>  
 | 교통 | 합정역 2번 출구에서 200번, 2200번 버스가 20~30분 간격으로 출발  
 | 문의 | 1688-1331 (내선113)  
 | 요금 | 전시관-3000원, 공방-5000원, 체험관-1만원, 전채이용요금-1만2000원  
 |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매주 월요일은 휴관)  
 | 홈페이지 | www.tiummall.com

2층 공방에서는 한글을 활용해 예쁜 엽서와 티셔츠, 두건, 유리공예 등을 직접 해보면서 한글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고향자로 인쇄체험을 해볼 수도 있다.

(쑤산돌티움의 석금호 대표는 한글퓌움 개관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우리 문화유산 ‘한글’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한 꼭 필요한 과업이라 생각했다”며 “한글퓌움을 통해 대한민국의 어린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고 세계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신이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글퓌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건물외벽에 쓰여진 말이다. “이 곳에서... 당신이 한국인인 것이 자랑스러워졌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이다. 언어는 마치 공기와 같아서 있을 때는 소중함을 잘 모른다. 그런데 한글퓌움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산돌티움 공동대표인 석금호 대표는 “어린이와 어른, 문화와 자연이 ‘한글’로 한데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한글퓌움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을 다양한 체험과 전시로 배우도록 하고, 더 많은 이들에게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

임남숙차장 sang@print.or.kr